

## 부산지역 제조기업과 비제조기업의 기업금융에 대한 의식과 함의

최진배\*

**요약:** 이 논문은 부산지역 기업을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구분한 후 이들이 기업금융에 대해 어떻게 의식하고 있으며 그것은 무엇을 함의하고 있는지를 설문조사결과에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부산지역의 제조기업과 비제조기업은 은행과의 거래가 상이하다. 이는 각자의 영업기반이 상이한데서 기인한다. 비제조기업은 주된 영업기반이 부산지역에 있어 지방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면서 주거래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이에 반해 제조기업은 영업망이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지방은행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면서 지방은행 이외의 은행과 밀접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지방은행으로 하여금 보다 폭넓게 지역기업의 정보생산기능과 감시기능을 발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설문조사를 기초로 지방은행이 지역밀착경영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밝힌 점은 이 논문의 중요한 기여의 하나이다.

**주요어:** 부산지역, 기업금융, 지방은행, 영업기반, 금융제약

### 1. 서론

최근 은행의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많은 은행들이 은행업과 함께 증권업, 보험업 등도 영위하고 있다. 그러면서 연구자들의 중소기업금융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은행의 대규모화와 겸업화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우리나라의 은행도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금융지주회사로 전환되면서 겸업화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반면에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제공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던 동남은행과 대동은행이 퇴출되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은행도 퇴출되었다.

중소기업금융과 관련하여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이

관계적 금융이다. 관계적 금융이란 은행이 재무투명성이 낮은 중소기업과 지속적으로 거래하는 가운데 파악한 정보에 기반하여 신용을 제공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보는 시장에서 거래될 수 없는 것으로 사적 정보라 부르기도 하며, 재무적 정보(즉 경성정보)와 대비되는 정보라 하여 연성정보(soft information)라 부르기도 한다. 이에 반해 은행이 주로 재무적 정보에 기초하여 신용을 공급하는 방식은 거래적 금융이라 한다. 은행은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 금융을 공급할 때 재무적 정보를 포함하여 이미 공개된 정보에 기초하여 신용을 평가하는데, 이들 정보는 사적 정보와는 달리 시장에서 얻을 수 있다.

관계적 금융에 대한 실증연구는 크게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으로 구분된다. 미시적 접근법은 기업

회계 자료나 은행의 대출계약 자료를 이용하여 은행이 관계적 금융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거시적 접근법은 통화정책이 변화될 때 기업대출이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는지 관찰하는 것으로 은행이 관계적 대출을 하면 통화긴축기에도 기업에 대한 대출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sup> 우리나라의 연구도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모두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와는 달리 개별기업자료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미시적 분석은 많지 않다.

재무투명성이 낮은 중소기업에게 금융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으려면 은행은 지속적으로 거래하면서 가운데 기업에 대한 사적인 정보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산하지 않는다면 역선택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을 억제하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중소기업은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기울여 감시를 해야 한다. 정보를 생산하고 감시를 계속하는 가운데 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사적인 정보를 파악하게 되는데, 기업신용에 긍정적인 사적 정보가 많을수록 재무투명성이 낮은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이 논문의 목적은 부산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금융에 관한 의식조사에 기초하여 부산지역 기업이 기업금융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함의하는지를 지방은행(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는데 있다.

## 2. 기존논의의 검토

관계적 금융에 관한 우리나라의 연구는 많지는 않다. 그러나 극단적인 분석결과를 내놓고 있다. 즉 한편에서는 우리나라 은행이 관계적 금융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관계적 금융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자는 서근우(2003)에서 매우 강하게 주장되고 있다. 국민은행의 「1999년도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의 개별기업자료를 이용하여 수행한 연구에서 서근우(2003)는 우리나라 은행은 공익적 성격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그리고 은행구조가 복잡하고 관료화되어 있어서 관계적 금융을 한 적이 없으며, 외환위기 이후에도 이러한 점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한다. 이에 반해 김동환(1999)은 1950년대 말~1998년 2월까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약 8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 우리나라 은행이 관계적 금융을 하였지만 기업간담 현상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sup>2)</sup> 김동환(1999)의 주장은 김현정(2002)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거시적 분석을 수행한 이 연구에서 김현정은 외환위기 이후 관계적 금융이 약화되었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로 그는 금융시스템 전반에 걸쳐 시장에 의한 규율 및 시장거래방식이 중시되고 그리고 은행이 단기수익성을 추구한다는 점 등을 지적한다.

비록 관계적 금융을 관심대상으로 하지는 않지만 강중구(2005)도 사실상 김현정(2002)의 주장에 동의한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은행의 금융중개기능이 약화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은행의 정보생산 및 감시기능의 저하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는 은행의 금융중개기능이 저하한 원인으로 은행업의 대형화와 점업화, 단기수익성위주의 은행경영, 외국계 은행의 진출확대, 은행의 안정성 중시경향, 가계소득의 불안정성 심화 그리고 기업의 대출수요 위축 등을 지적한다.

관계적 금융에 관한 우리나라의 연구는 관계적 금융이 약화되었다는데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이유로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지목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은행간 경쟁과 은행의 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이 관계적 금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기존논의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 1) 은행 간 경쟁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은행의

수는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은행간 경쟁은 오히려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의 은행신용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강화되었는데 이 자체 은행간 경쟁을 심화시킨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보인다.

은행간 경쟁이 심화되면 관계적 금융이 위축되며, 은행간 경쟁이 제한되면 관계적 금융이 활성화된다. 예컨대 Petersen & Rajan(1995)에 의하면 은행의 집중도가 강화되면 관계적 금융이 강화되면서 재무투명성이 낮은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강화된다. 금융시장이 완전하다면 은행업의 집중 강화는 신생기업의 진입을 억제하고 기존기업의 퇴출을 지체시킨다. 그러나 현실의 경제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은행간 경쟁이 제한될 때 오히려 신생기업의 창업이 촉진된다. 관계적 금융이 활성화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주장은 Cetorelli(2003), Cetorelli & Gambera(2001), Bonaccorsi di Parti & Dell'Ariccia(2004) 등에 의해 확인된다.

관계적 금융은 지역의 소규모 은행에 유리하다. 지역에 밀착된 경영을 함으로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지역기업에 대한 사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조직이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대리인비용도 크지 않다.<sup>3)</sup> 그러나 DeYoung *et al.* (2004)이 주장하듯이 대형은행이 지역의 지점망을 확충하여 지역은행과 접근전을 벌이면서 개인화되고 고객맞춤형 서비스를 증대시키게 되면 소규모 지역은행의 이점은 크게 위축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은행들은 이미 지역금융시장에서 지역은행과 접근전을 벌이고 있다.<sup>4)</sup> 이러한 환경은 지역은행이 관계적 금융을 하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는 지역밀착이 지역은행의 전유물이 될 수 없도록 할 수 있는데, 전국은행들이 지역에 광범위하게 지점망을 구축한 후에 지방은행이 신설되었다는 점도 지역은행이 지역밀착경영을 하는데 적지 않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 2) 금융지주회사화와 지역금융

최근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금융그룹화가 확산되면서 지방은행도 속속 지주회사로 전환되고 있다.<sup>5)</sup> 이러한 경향은 은행의 정보생산 및 감시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산업은 고정비용의 비중이 매우 크다. 따라서 업종별로 업무의 유사성이 큰 영역에서는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수록 고정비용 절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금융산업은 정보생산이 주된 업무인 만큼 업종별로 업무를 통합하면 정보의 상호 보완성이 매우 커서 정보생산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한편 지주회사방식은 전문적인 리더십을 통해 자회사간 정보공유와 원활한 협조를 도출할 수 있으며, 자회사방식에 비해 자회사의 지배에 소요되는 자본이 절감되어 대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쉽다. 그리고 종합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에 유리하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지주회사방식은 금융그룹화를 통해 대형화와 겸업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sup>6)</sup>

그런데 은행의 합병 및 대형화(지주회사화 포함)가 가지는 최대의 약점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급능력의 약화이다. 합병은 중소기업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Avery & Samolyk, 2004), 지주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소형은행은 대형은행과 같이 행동한다(Carter *et al.*, 2004)는 분석결과는 이를 잘 보여준다.<sup>7)</sup> 금융지주회사화는 관계적 대출에도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 예컨대 Berger & Udell(2002)은 은행 최고경영자는 겸업화의 확대로 다양한 업무를 취급함에 따라 관리비용이 높아질 경우 상대적으로 업무 관리비용이 높은 관계대출을 줄이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면서, 겸업화가 확대될수록 증권인수, M&A 중개, 보험상품판매 등 예·대업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비은행업무에 인적·물적 자원 투입을 확대함에 따라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금융지주회사로 전환되면 수입구조가 다변화될 수

있다. 수수료에 기반한 이익(fee-based earnings)은 대출에 기반한 이익보다 안정적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수수료기반이익이 이자율변동이나 경기변동에 덜 민감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변화효과를 통해 전통적인 은행생산물 포트폴리오에 수수료기반 금융활동의 비중이 증가하면 전체적으로 이익변동성이 감소할 것으로 생각했다. 수수료기반이익이 전통적인 은행활동에서 얻은 이익과 상관관계가 낮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수료기반금융활동이 증가하면서 이익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레버리지도 상승하고 있다. DeYoung & Roland(2001)에 의하면 비이자이익관련 업무가 확대되면 수익성 개선에 기여하지만 증권, 보험업무 등 수수료 중심의 투자은행관련 영업비중이 확대되면 수익변동성을 확대시켜 겸업화에 따른 수익개선효과가 상쇄된다. 특히 그들은 변동성이 높은 이유로 이자수익의 경우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적 대출이 정착되어 안정적인 자금수요 관계가 구축될 수 있는 반면 비은행업무는 높은 경쟁도와 불안정한 상품수요 등으로 수익변동성이 불안정하게 되는 점을 중시하였다(이상 배병호(2006)에서 인용).

금융지주회사제도가 도입된 후 비이자이익의 증가가 은행의 수익 변동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배병호(2006)에 의하면 우리나라 은행은 비은행업무가 확대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수익변동성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 은행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수료 수익증대와 신용카드 업무확대에 치중한 데서 기인하는 것이며, 유가증권, 외환·파생관련 업무의 경우 수익변동성 확대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에서 보듯이 은행간 경쟁이 심화되고 은행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되면 관계적 금융이 위축되거나 적어도 기업에 대한 정보생산과 감시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결론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환경이 변화되면서 관계적 금융 또는 금융중개기능이 약화되었다는 김현정(2002)과 강종구(2005)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은행의 정보생산기능

과 감시기능의 약화가 기업금융에 대한 기업인의 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해보기로 한다.

### 3. 설문조사결과와 분석

#### 1) 설문조사방식과 분석방법

필자는 설문조사를 위한 모집단으로 2010년 10월 1일 현재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에 등록되어 있는 부산지역의 제조업체 9,660개를 추출하였다. 이 중 이메일 주소가 있는 2,440개의 기업에 사전에 동의를 받은 후 설문지를 보내 온라인 설문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회신이 너무나 저조하여 몇 번에 걸쳐 전화로 회신을 독려했지만 2010년 10월말까지 회수한 설문지는 74개에 불과하였다. 이에 2010년 11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부산광역시의 세 개의 공단(사상공단, 장림신평공단, 녹산공단)에 있는 기업체에 조사원을 보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추가로 335개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모두 409개이다.

설문지는 모두 3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기업의 속성에 관한 질문(문항 1~7), 기업의 경영사정에 관한 질문(문항 8~12), 주거래은행관계를 포함한 기업의 금융거래에 관한 질문(문항 13~30), 그리고 대출심사를 할 때 금융기관이 중시해주었으면 하고 기업이 희망하는 사항을 묻는 질문(문항 31~34)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설문구조에 맞추어 이하의 서술은 표본기업의 개관, 표본기업과 주거래은행, 표본기업의 기대로 구분하였다.

제조기업과 비제조기업은 영업기반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기업금융에 대한 기대가 상이할 수 있다. 예컨대 제조기업은 많은 경우 주문생산을 하고 있는데, 발주기업은 부산지역 밖에 있는 (대)기업일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발주기업은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춘 전국은행과 주거래은행관계를 맺게 되는데, 지역의 제조기업도 자금의 결제 등을 위해 발주기업의 주거래은행과 거래관계를 맺게 된다. 이와는 달리 비제조기업의 주된 영업기반은 건설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의 경우 명백하듯이 지역에 있다. 이들 기업은 지역금융기관과 주거래은행관계를 맺을 유인이 크다. 지역금융기관도 이들 기업에 대한 정보의 생산과 감시기능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과 주거래은행관계를 맺으려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 논문에서는 설문에 응답한 기업을 제조기업과 비제조기업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설문조사결과를 평균차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분산분석(ANOVA)을, 독립성 검증을 위해서는 카이제곱검증을 그리고 분할표의 시각적 분석을 위해서는 대응분석(correspondence analysis)을 수행하였다.

## 2) 표본기업의 개관

기업들은 2009년도 말 현재의 종업원 수와 매출액을 모두 응답하였다. 그러나 종업원 수와 매출액 사이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변수를 규모변수로 채택해도 문제는 없다. 이 논문에서는 매출액을 규모변수로 이용하였다.

표본기업을 제조기업과 비제조기업으로 구분할 경우 표본의 수는 나누지 않을 경우보다 감소한다. 24

개 기업이 업종을 표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특이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기업 16개와 일부 매출액을 표기하지 않은 기업을 제외하였기 때문에 분석대상기업은 350개로 줄어들었는데, 제조기업과 비제조기업은 각각 194개와 156개이다. 표본기업의 매출액 현황을 보면 매출액 10억원 미만인 기업이 122개로 전체의 34.9%를 점유하고 있으며, 10억원 이상~20억원 미만인 기업의 점유율은 21.1%이다. 이렇게 20억원 미만인 기업은 표본기업 전체의 56.0%를 점유하는데, 이들이 제조기업과 비제조기업에서 점하는 비중은 각각 52.0%, 60.9%이다. 3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이 제조기업과 비제조기업에서 점하는 비중도 각각 37.6%, 33.4%로 제조기업의 매출액 규모가 비제조기업의 그것보다 큰 편이다.

표본기업의 업종은 제조업이 제일 많지만<sup>8)</sup> 건설업, 정보통신업, 운수업, 도소매업, 부동산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기타로 매우 다양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본기업 중 제조업은 215개로 55.8%를 점유하고 있다. 그리고 도소매업이 55개(14.3%)로 그 다음으로 많으며, 서비스업(38개, 9.9%), 건설업(20개, 5.2%), 정보통신업(15개, 3.9%)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업종별로 설립계기를 보면 제조업과 비제조업 각각 89.6%와 86.8%로 창립이 제일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인수한 경우는 비제조업이 10.8%로 제조업의 5.7%에 비해 빈도가 높으며, 상속받은 경우

표 1. 표본기업의 매출액 규모 현황

(단위: 개, %)

	10억원 미만	20억원 미만	30억원 미만	50억원 미만	100억원 미만	300억원 이하	계
제조기업	59 (30.4)	42 (21.6)	20 (10.3)	28 (14.4)	28 (14.4)	17 (8.8)	194 (100.0)
비제조기업	63 (40.4)	32 (20.5)	17 (10.9)	14 (9.0)	18 (11.5)	12 (7.7)	156 (100.0)
합계	122 (34.9)	74 (21.1)	37 (10.6)	42 (12.0)	46 (13.1)	29 (8.3)	350 (100.0)

주: ( )는 구성비

표 2. 표본기업의 업종별 현황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기타	계
기업수(개)	215	55	38	20	15	19	385
구성비(%)	55.8	14.3	9.9	5.2	3.9	4.9	100.0

는 각각 2.4%, 4.7%로 제조업이 약간 높다. 한편 대표자의 성별현황을 보면 제조업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81.2:18.8로 비제조업의 78.8:21.2와 큰 차이는 없다.

재무제표의 작성방법을 보면 제조업의 경우 공인회계사의 손을 빌려 작성하고 있으며 외부감사를 받고 있다는 응답(20.8%)이 비제조업의 응답(13.5%)보다 빈도가 높다. 그러나 독자적으로 작성한다는 응답과 세무사의 손을 빌려 작성한다는 응답은 비제조업에서 빈도가 높다. 각각의 응답에서 비제조업과 제조업의 비중은 12.8% : 8.2% 및 43.6% : 41.5%이다. 이

는 규모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에서 매출액이 클수록 공인회계사의 손을 빌려 작성하고 있으며 외부감사를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상의 차이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앞으로의 차입계획을 보면 제조업은 54.1%(비제조업은 41.3%)가 차입을 줄이겠다고 응답하였으며, 11.0%(비제조업은 10.2%)는 차입을 늘리겠다고 응답하였다. 향후 차입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향후차입계획을 세전이익과 교차분석해 보았다. 그러나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에서 통

표 3. 재무제표의 작성방법

	제조업		비제조업	
	빈도(개)	구성비(%)	빈도(개)	구성비(%)
독자적으로 작성	15	8.2	17	12.8
공인회계사의 손을 빌려서 작성 (그러나 감사는 받지 않음)	53	29.1	40	30.1
공인회계사의 손을 빌려서 작성 (감사를 받음)	38	20.9	18	13.5
세무사의 손을 빌려 작성	76	41.8	58	43.6
계	182	100.0	133	100.0

표 4. 향후차입계획

	제조업		비제조업	
	빈도(개)	구성비(%)	빈도(개)	구성비(%)
차입을 줄이겠다	113	54.1	69	41.3
현상유지	73	34.9	81	48.5
차입을 늘린다	23	11.0	17	10.2
합계	209	100.0	167	100.0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향후차입계획을 매출액과 교차분석하였는데, 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업력과 교차분석하였다. 제조업의 경우에만 10%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제조업은 업력이 높은 기업일수록 차입을 줄이겠다고 응답하였다(유의확률  $p=0.084$ ).

다시 세전이익, 매출액 그리고 업력이 다르면 차입을 줄이려는 이유에도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해 보았는데, 업력에서만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유의확률은 제조업은  $p=0.018$ , 비제조업은  $p=0.006$ ). 차입을 줄이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 제조업의 경우 업력이 높은 기업은 '새로운 투자기회가 없고 여유자금이 있어서' 또는 '은행이 상환을 요구해서' 라고 응답하였는데, 이렇게 응답한 기업의 업력은 각각 평균 23.2년과 22.3년이다. 그러나 후자라고 응답한 기업은 5개로 소수이다. 업력이 제조업 평균(14.5년) 부근인 기업의 경우에는 '자금조달비용이 증대해서', '차입은 좋지 않은 것이어서', '새로운 투자기회가 생길 때 차입할 수 있기 위하여' 또는 '은행이 대출을 제한해서' 라고 응답하였다. 그런데 '은행이 대출을 제한해서' 라고 응답한 기업의 업력은 제조기업 평균에 비해 가장 짧으며, 5개로 소수에 불과하다.

비제조업의 경우에도 '새로운 투자기회가 없고 여

유자금이 있어서' 그리고 '은행이 상환을 요구해서' 라고 응답한 기업의 업력평균은 각각 14.2년과 15.5년으로 표본평균(10.1년)을 상회하였다. 그러나 후자라고 응답한 기업은 3개로 소수이다. 업력이 표본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비제조기업은 차입을 줄이려는 이유로 '차입은 좋지 않은 것이어서' 또는 '새로운 투자기회가 생길 때 차입할 수 있기 위하여' 라고 응답하였다. 그 밖에 소수의 기업은 '은행이 상환을 요구해서' 또는 '은행이 대출을 제한해서' 라고 응답하였는데, '은행이 대출을 제한해서' 라고 응답한 기업의 업력은 4년에 불과하고 기업 수도 2개뿐이다.

응답기업이 5개 이하로 소수인 경우를 제외하면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에서 차입금을 줄이려는 이유로 '새로운 투자기회가 없고 여유자금이 있어서' 라고 응답한 기업은 업력이 높은 성숙기업(또는 사양기업)이다. 그리고 업력이 평균값에 근접한 기업의 경우에는 '자금조달비용이 증대해서', '차입은 좋지 않은 것이어서' 또는 '새로운 투자기회가 생길 때 차입할 수 있기 위하여' 라고 응답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먼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업력이 높은 기업의 투자욕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을 줄이겠다는 응답이 제조기업(54.1%)과 비제

표 5. 업력별로 본 차입을 줄이려는 이유

	제조업		비제조업	
	빈도(개)	평균업력(년)	빈도(개)	평균업력(년)
자금조달비용이 증대해서	26	14.6	13	14.2
새로운 투자기회가 없고 여유자금이 있어서	11	23.2	14	15.5
차입은 좋지 않은 것이어서	21	13.1	16	7.1
새로운 투자기회가 생길 때 차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1	12.7	17	6.6
은행이 상환을 요구해서	3	22.3	3	7.7
은행이 대출을 제한해서	5	10.0	2	4.0
계 및 평균업력	107	14.5	65	10.1

조기업(41.3%)에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은 투자 기회의 부족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지역기업은 자금조달비용에 매우 민감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업력이 업계 평균에 도달한 바꾸어 말하자면 사업기반이 안정된 것으로 보이는 기업에서 이러한 응답이 높다. 금융기관의 대출이자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기업간 경쟁이 심화되고 그리고 수익률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3) 표본기업과 주거래은행

표본기업은 95.0% 이상이 주거래은행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제조업은 95.8% 비제조업은 95.9%이다. 이 비율은 일본기업보다 높다. 家森信善(2006)에 의하면 주거래은행이 있다고 응답한 일본기업의 비율은 90% 전후의 수준이다.

표본기업의 주거래은행 실태를 보면 제조기업의 경우 기업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는 기업이 전체의 35.5%로 제일 많고, 부산은행과 국민은행을 주거

래은행으로 하는 기업이 각각 22.8%, 15.7%를 점유하고 있다. 우리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는 기업이 점유율 10%를 상회하고 있지만 다른 전국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는 기업의 점유율은 5% 미만이다. 부산은행을 제외한 지방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는 기업의 점유율은 0.5%에 불과하다. 한편 비제조기업의 경우에는 부산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는 기업이 33.3%로 제일 많다. 그리고 농협중앙회(17.0%), 국민은행(13.8%), 기업은행(13.2%), 우리은행(8.8%)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표본기업의 주거래은행 분포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지역기업의 주거래은행으로서 부산은행, 기업은행 그리고 국민은행의 세 은행이 압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제조업에서 주거래은행으로서 세 은행의 비중은 74.0%이며, 비제조업에서 그것은 60.0%이다. 둘째, 부산은행은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에서 주거래은행으로서 비중이 높으며, 비제조업에서의 비중은 은행 중에서 가장 높다. 셋째, 제조업의 경우 기업은행의 비중이 제일 높다. 넷째, 국민은행은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에서

표 6. 업종별 주거래은행 현황

	제조업		비제조업	
	빈도(개)	구성비(%)	빈도(개)	구성비(%)
경남은행	1	0.5	2	1.3
국민은행	31	15.7	22	13.8
기업은행	70	35.5	21	13.2
농협중앙회	8	4.1	27	17.0
대구은행	1	0.5	1	0.6
부산은행	45	22.5	53	33.3
산업은행	3	1.5	-	-
신용협동조합	-	-	1	0.6
신한은행	6	3.0	7	4.4
외환은행	7	3.6	5	3.1
우리은행	22	11.2	14	8.8
SC제일은행	-	-	3	1.9
하나은행	3	1.5	3	1.9
계	197	100.0	159	100.0

비교적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는데 반해 농협중앙회는 비제조업에서만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시중은행 중에서는 국민은행을 제외한다면 우리은행이 10% 전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며, 지방은행의 비중은 무시할만한 수준이다.<sup>9)</sup> 마지막으로 지역에 본점을 두고 있지만 서민금융기관은 지역기업의 주거래은행으로서의 기능을 거의 수행하지 못한다.

제조업의 경우 은행별 주거래기업의 매출액을 보면 기업은행과 전국은행 주거래기업이 각각 43.2억원, 43.5억원으로 제일 크고, 국민은행 주거래기업이 18.7억원으로 제일 작다. 부산은행의 주거래기업의 매출액은 표본기업의 평균매출액(30.8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28.2억원이다(유의확률  $p=0.057$ ). 그러나 비제조업의 경우 은행별 주거래기업의 매출액 규모에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외부자금을 조달할 때 중시하려는 항목을 중요한 순서대로 3개를 선택하라는 질문에 대해 제조업의 경우 표본기업의 46.5%가 주거래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을 제1순위로 응답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의 정책자금을 제1순위로 응답한 기업은 각각 33.2%와 13.9%이다. 제2순위로 응답한 조달방법에서는 정책자금(36.3%가 지방정부, 30.2%가 중앙정부)이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20.9%는 주거래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이라고 응답하였다. 제3순위 응답으로는 주거래은행이 제일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으며, 지방정부정책자금과 주거래은행 이외의 금융

기관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비제조업의 경우 제1순위로 62.2%가 주거래은행으로 19.9%가 중앙정부 정책자금으로 응답하였다. 제2순위로는 45.2%가 주거래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으로 그리고 22.6%와 21.2%가 각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책자금으로 응답하였다. 제3순위로는 24.6%가 지방정부 정책자금으로 그리고 22.4%와 15.7%가 각각 주거래은행과 중앙정부 정책자금으로 응답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제조업은 외부자금으로 정책자금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비제조업은 주거래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의존하려 한다. 이는 정책자금이 제조업에 우선적으로 공급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제조기업의 주거래은행 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의 중요한 주거래은행으로서 정보생산과 감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은행은 이들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해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들은 외부자금을 조달할 때 주거래은행에 의존하려 하지만 주거래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은 줄이려 한다. 제조업의 경우 늘리겠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은 24.6%로 줄이겠다고 응답한 비중 35.9%보다 적다. 비제조업의 경우에도 늘리겠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21.5%)이 줄이겠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26.6%)보다 낮다. 그러나 줄이겠다는 응답이 제조업만큼 크지는 않다. 오히려 51.9%의 기업이 현행과 같이 하겠다고 응답하는 등 주거래은행에 의존하려는

표 7.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 의향

	제조업		비제조업	
	빈도(개)	구성비(%)	빈도(개)	구성비(%)
늘린다	22	11.3	13	8.2
조금 늘린다	26	13.3	21	13.3
현행과 같이 한다	77	39.5	82	51.9
줄인다	48	24.6	26	16.5
조금 줄인다	22	11.3	15	10.1
합계	195	100.0	158	100.0

표 8. 주거래은행과의 거리

	제조업		비제조업	
	빈도(개)	구성비(%)	빈도(개)	구성비(%)
10분 이내	85	42.1	89	55.6
10분 이상~30분 이내	71	35.1	41	25.6
30분 이상	46	22.8	30	18.8
합계	202	100.0	160	100.0

의향이 강하다.

주거래기업별로 보면 제조업의 경우 국민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는 기업은 늘리겠다고 응답한 반면 부산은행과 기업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는 기업은 줄이겠다고 응답하였다(유의확률  $p=0.036$ ). 비제조업의 경우 기업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는 기업은 늘리겠다고 응답하였지만 국민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는 기업은 줄이겠다고 응답하였다(유의확률  $p=0.086$ ).

제조기업의 경우 표본기업의 42.1%는 주거래은행이 자동차로 10분 이내에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10~30분 이내에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35.1%이다. 그러나 30분 이상 떨어져 있다고 응답한 기업도 22.8%에 이른다. 비제조기업은 제조기업보다 주거래은행이 가까운 거리에 있다. 즉 55.6%의 기업이 자동차로 10분 이내에 주거래은행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10분 이상~30분 이내에 있다고 응답한 기업과 30분 이상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각각 25.6%와 18.8%이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에서 부산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는 기업은 주거래은행과 10분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제조기업 중 전국은행과 기업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는 기업은 10분 이상~30분 이내의 거리에 그리고 국민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는 기업은 30분 이상 떨어진 거리에 있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이 높다(유의확률  $p=0.067$ ). 비제조업의 경우 전국은행과 기업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는 기업은 주거래은행과 30분 이상 떨어진 거리에 있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이 높다(유의확률  $p=0.006$ ). 이로부터 우리는 부산은행이 다른 은행과 달리 조밀한 지점망을 배경으로 주거래기업과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거래은행의 대출담당직원은 비교적 자주 바뀌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과거 3년간 대출담당직원이 바뀐 회수에 대한 질문에 53.5%가, 비제조업의 경우 54.4%가 2회 이상 바뀌었다고 응답하였다. 비제조업의 경우 응답기업의 7.5%는 대출담당자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주거래은행별로 담당직원의 교체빈도에는 차이가 없다. 한편 대출담당자와 기업간 만남의 빈도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36~37일에 한번 꼴인데, 주거래은행별로 만남의 빈도에 차이가 없다. 은행들은 거래기업을 개별적으로 만나기보다는 지점별로 차입기업의 모임을 결성하여 거의 공식적인 방식으로 만나고 있다. 담당자를 자주 바꾸거나 공식적인 모임의 형식을 취하면 은행은 대리인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렇지만 기업의 사적 정보를 파악하고 그리고 밀착된 감시를 하는 데는 제약이 있다.

현재의 주거래은행에게 바라는 점 3개를 중요한 순서대로 응답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제조업의 경우 가장 중요한 점으로 48.1%가 금융의 제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의사결정의 신속함(12.2%)과 자기 회사에 대한 지식(11.6%)을 꼽았다. 두 번째로 중요한 점으로는 용자담당자의 계속성(22.3%), 의사결정의 신속함(20.1%), 금융의 제공(18.4%)라고 응답하였다. 세 번째로 중요한 점으로는 의사결정의 신속함

표 9. 과거 3년간 담당직원의 변경 빈도

	제조업		비제조업	
	빈도(개)	구성비(%)	빈도(개)	구성비(%)
변경 없다	37	18.5	32	20.0
1회	51	25.5	29	18.1
2회	67	33.5	42	26.3
3회 이상	40	20.0	45	28.1
담당자가 없다	5	2.5	12	7.5
합계	200	100.0	160	100.0

표 10. 과거 5년 사이에 주거래은행 변경 여부

	제조업		비제조업	
	빈도(개)	구성비(%)	빈도(개)	구성비(%)
변경 없다	37	18.5	32	20.0
실제 변경했다	32	16.2	16	10.0
검토했지만 변경하지 않았다	72	36.5	59	36.9
변경을 생각한 적이 없다	93	47.2	85	53.1
합계	197	100.0	160	100.0

(19.7%), 광범한 서비스의 제공(15.7%), 자기 회사가 활동하는 지역시장에 대한 지식(14.6%)이라고 응답하였다.

비제조업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금융의 제공(48.7%)을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용자담당자의 계속성(11.8%)과 의사결정의 신속함(11.8%)이라고 응답하였다.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중요한 점으로는 비록 응답률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제조업의 경우와 유사하다. 이렇게 부산지역 기업의 다수는 주거래은행이 필요한 자금을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공급해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비록 기대치가 높지는 않지만 주거래은행이 자기 회사에 대해 잘 알고, 용자담당자가 빨리 바뀌지 않고 그리고 광범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도록 바라고 있다.

과거 5년 사이에 주거래은행을 변경하였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제조기업은 47.2%만이 변경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16.2%는 실제로 주거래

은행을 변경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비제조기업은 53.1%가 변경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실제로 변경한 기업은 10.0%이다. 변경을 했거나 검토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에게 그 이유를 질문하였는데, 이에 대해 제조기업은 차입조건에 불만(30.4%), 차입액에 상한이 있고 지금의 주거래은행에서는 대응할 수 없다(16.6%), 대출심사속도가 늦다(10.9%), 정보제공, 경영상담기능이 약하다(10.8%) 등이라고 응답하였다. 비제조기업도 구성비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항목이나 그 순서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

표본기업의 이상과 같은 응답은 정부의 강력한 지도 아래 관계적 금융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일본기업의 응답과는 다르다. 먼저 주거래은행에 대해 바라는 점에 대한 질문에 일본기업은 자기 기업에 대한 지식을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주거래은행을 실제 변경한 비율(9.5%)이나 검토했지만 변

표 11. 은행별 주거래기업의 거래금융기관 수

	제조업				비제조업			
	1개	2개	3개 이상	계	1개	2개	3개 이상	계
부산은행	17 (45.9)	8 (21.6)	12 (32.4)	37 (100.0)	18 (43.9)	14 (34.1)	9 (22.0)	41 (100.0)
전국은행	11 (24.4)	17 (37.8)	17 (37.8)	45 (100.0)	19 (33.9)	27 (48.2)	10 (17.9)	56 (100.0)
국민은행	11 (40.7)	9 (33.3)	7 (25.9)	27 (100.0)	7 (35.0)	7 (35.0)	6 (30.0)	20 (100.0)
기업은행	22 (35.5)	25 (40.3)	15 (24.2)	62 (100.0)	6 (35.2)	9 (52.9)	2 (11.8)	17 (100.0)
계	60 (35.1)	59 (34.5)	51 (29.8)	171 (100.0)	50 (37.3)	57 (42.5)	27 (20.1)	134 (100.0)

경하지 않았다는 비율(17.1%)도 상대적으로 낮다. 한편 주거래은행을 변경했거나 검토했지만 변경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많은 일본 기업은 우리나라 기업과 유사하게 차입조건에 대해 불만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은행원의 방문빈도가 적다가 두 번째이고 은행점포까지의 거리가 멀다는 응답도 12.5%에 이른다.<sup>10)</sup> 표본기업과 일본기업의 응답의 차이는 우리나라 은행이 일본의 은행에 비해 기업에 대한 사적인 정보를 생산하고 감시하는 기능이 약한 것을, 나아가 관계적 금융의 활용면에서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어느 금융기관과 거래를 확대하고 싶은지는 질문에 대한 표본기업의 응답을 살펴보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대응분석을 실시하였다. 분할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카이제곱 검정을 수행한다. 카이제곱 검정은 행과 열의 독립적 가설을 검정하는 것으로 연관성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카이제곱 검정은 행과 열의 결합 양상을 보여주지 못하는 데, 분할표를 좌표상의 거리로 표현한 대응분석(correspondence analysis)은 이러한 결합 양상을 시각화(visualization)하여 보여준다.<sup>11)</sup> 대응분석의 결과는 그림 1과 그림 2로 나타냈는데, 현재의 주거래은행관계를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업의 생각은 현재의 주거래

은행과 향후 주거래은행과의 거리로 표기된다. 물론 거리가 가까운 쪽의 은행으로 주거래은행을 변경하고 싶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한다.

표본기업은 어느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느냐에 따라 상이한 응답을 하였다. 제조업의 경우 시중은행(국민은행 제외)을 주거래은행으로 하는 기업은 시중은행이라고 응답하였다.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는 기업은 각각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부산은행의 주거래기업은 특정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는 부산은행의 주거래기업이 어느 은행과도 거래하려 한다는 것을 함의한다.

비제조업의 경우 국민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는 기업은 앞으로도 국민은행과 거래하고 싶다고 응답함으로써 높은 충성도를 보여주었다. 전국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는 기업은 기업은행이나 특수은행(기업은행 제외)과 거래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는데, 부산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는 기업은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부산은행 포함)과 거래하고 싶다는 의향을 보여주고 있다.

대응분석만으로 어떤 단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응답기업을 중심으로 개별면담을 하는 등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결과로부터 다음 두 가지 주장을 할 수 있다. 하나는 부산은행이 다른 모든 은행과 경쟁관계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부산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고 있는 기업은 다른 은행의 주거래기업에 비해 부산은행하고만 거래하는 기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다.). 이는 부산은행은 주거래기업과 매우 밀착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응분석에서 보듯이 부산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는 지역기업이 앞으로 다른 모든 은행과 거래하고 싶다고 응답한 것은 그들이 부산은행 대 비부산은행이라는 대립구도 속에서 은행거래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다른 하나는 영업기반을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해 부산은행은 정보생산기능과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기업과의 밀착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부산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는 지역기업이 은행거래를 결정함에 있어 부산은행-다른 모든 은행이라는 대립구도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는 지역기업은 앞으로 부산은행과 거래하고자 하는 의향이 크지 않다. 부산은행은 제공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의 다양성 면에서 다른 은행에 열세에 있다. 무엇보다 지점망이 부산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 등을 극복하고 지역기업과 거래관계를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해 부산은행은 지역기업과 더욱 밀착될 필요가 있다.

#### 4) 표본기업의 기대

표본기업의 금융기관에 대한 기대를 잘 보여주는 것은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출할 때 심사항목으로서 무엇을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다. 모두 22개의 작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은 일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 요인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제조업 및 비제조업 모두에서 여섯 개의 요인을 추출할 수 있었다. 이에 여섯 개 요인에 임의로 이름을 정하고 22개의 질문을 각각의 이름 밑에 할당하였다.<sup>12)</sup> 제조업과 비제

조업에 대한 요인명칭의 부여 및 동일한 요인명칭에 할당된 질문항목에는 차이가 있다. 업종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으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제조업과 비제조업이 금융기관에 대한 기대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각 업종에 속한 기업의 금융기관에 대한 기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분석결과를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나누어서 서술하였다.

제조업의 경우 요인의 이름과 각 요인에 할당된 질문항목은 다음과 같다. 즉 「재무정보요인1」에는 기업의 규모, 채무상환능력(채무상환연수 등), 안전성(자기자본비율 등), 수익성(매출액성장이익률 등), 「재무정보요인2」에는 업종, 정보공시의 빈도나 질, 외부기관 평가, 거래연수, 「신용보완요인」에는 부동산담보, 부동산 이외의 물적 담보,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개인보증, 대표자의 개인자산, 「성장성요인1」에는 성장성(매출액성장률 등), 대표자의 자질, 사업상의 강점과 약점(제품력 및 기술력), 「성장성요인2」에는 대표자의 도산이력, 사업기반(고객기반 및 공급체제), 그리고 「금융기관요인」에는 주거래은행 여부, 융자담당자와 기업과의 신뢰관계, 다른 금융기관의 동향, 기업의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의 평가가 각각 할당되었다.

요인분석을 한 후 필자는 짝지은 t-검정(paired t-test)을 수행하였다. 각 응답 항목에 5단계로 점수를 부여하였는데, '매우 중시해야 한다'에는 5점, '중시해야 한다'에는 4점, '어느 쪽도 아니다'에는 3점, '거의 중요하지 않다'에는 2점, 그리고 '전혀 중요하지 않다'에는 1점을 부여하였다. 그런 다음 묶인 요인들의 평균값을 구해서 짝지은 t-검정을 하였다.

검정결과는 15개의 대응으로 요약되는데, 그 결과는 표 12에 정리되었다. 이것에 따르면 「성장성요인1」은 모든 요인을 지배하고 있으며, 「성장성요인2」도 「성장성요인1」을 제외한 모든 요인을 지배하고 있다. 이것은 제조기업이 금융기관이 대출할 때 기업의 성장성을 중시해주도록 기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sup>13)</sup>



이러한 결과는 심상규(2006)의 분석결과와 거의 일치한다. 그런데 신용평가모형에 성장성요인을 반영하기란 쉽지 않다. 성장성요인을 기업의 신용평가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해당요소에 대한 예측작업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예측오류가 발생하여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14)</sup> 이러한 문제는 은행이 기업의 사적정보를 파악함으로써 완화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이 성장성요인을 대출심사 때 반영해주길 원한다는 것은 관계적 금융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신용보완요인」은 모든 요인에 의해 지배된다. 「금융기관요인」도 「신용보완요인」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 의해 지배된다. 이것은 은행이 담보로 신용을 보완하려는데 대해 그리고 신용평가 때 주거래은행 여부 등을 반영하는 것에 대해 기업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어서 비제조기업의 금융기관에 대한 기대를 살펴보기로 한다. 비제조업의 경우 요인의 이름과 각 요인에 할당된 질문항목은 다음과 같다. 즉 「기본정보요인」에는 업종과 기업의 규모, 「재무정보요인1」에는 채무상환능력(채무상환연수 등), 안전성(자기자본비율 등), 수익성(매출액경상이익률 등), 성장성(매출액성장률 등), 「재무정보요인2」에는 정보공시의 빈도나 질, 용자담당자와 기업과의 신뢰관계, 다른 금융

기관의 동향, 기업의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의 평가, 「신용보완요인」에는 부동산담보, 부동산 이외의 물적 담보,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개인보증, 외부기관 평가, 「대표자정보요인」에는 대표자의 자질, 대표자의 개인자산, 대표자의 도산이력, 사업기반(고객기반 및 공급체제), 사업상의 강점과 약점(제품력 및 기술력), 그리고 「금융기관요인」에는 거래연수, 주거래은행 여부가 각각 할당되었다.

검정결과 15개는 표 13에 정리되어 있는데, 그 결과는 제조기업의 금융기관에 대한 기대와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즉 비제조기업은 채무상환능력, 안전성, 수익성, 성장성 등을 내포하고 있는 「재무정보요인1」을 가장 중시해줄도록 요구하고 있다. 대표자의 자질, 대표자의 개인자산, 대표자의 도산이력, 사업기반, 사업상의 강점과 약점과 같은 「대표자정보요인」을 중시한다는 점에서도 제조기업과는 상이하다. 두 요인 속에는 기업신용에 대한 질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성장성(매출액성장률 등), 사업기반, 사업상의 강점과 약점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성장성요인1, 2」를 매우 중시하는 제조기업만큼 성장성을 평가해줄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 마지막으로 「재무정보요인2」, 「기본정보요인」, 「금융기관요인」, 「신용보완요인」 등은 모두 「재무정보요인1」과 「대표자정보요인」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리고 상호간에는 서로

표 12. 요인별 지배 및 피지배 관계 요약(제조업)

	재무정보1	신용보완	재무정보2	성장성1	성장성2	금융기관
재무정보1	-	○	○	×	×	○
신용보완	×	-	×	×	×	×
재무정보2	×	○	-	×	×	○
성장성1	○	○	○	-	○	○
성장성2	○	○	○	×	-	○
금융기관	×	○	×	×	×	-

주: 1) ○은 지배를, ×는 피지배를 의미한다.

2) 각 요인의 Cronbach 알파 값은 다음과 같다. 재무정보요인1 0.690, 신용보완요인 0.753, 재무정보요인2 0.634, 성장성요인1 0.595, 신용보완요인 0.745, 성장성요인2 0.481, 금융기관요인 0.702.

표 13. 요인별 지배 및 피지배 관계 요약(비제조업)

	재무정보1	신용보완	재무정보2	성장성1	성장성2	금융기관
기본정보	-	×	≐	≐	×	≐
재무정보1	○	-	○	○	○	○
재무정보2	≐	×	-	≐	×	≐
신용보완	≐	×	≐	-	×	≐
대표자정보	○	×	○	○	-	○
금융기관	≐	×	≐	≐	×	-

주: 1) ○은 지배를, ×는 피지배를 그리고 ≐는 서로 같은 요인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각 요인의 Cronbach 알파 값은 다음과 같다. 기본정보요인 0.634, 재무정보요인1 0.757, 재무정보요인2 0.780, 금융기관요인 0.768, 신용보완요인 0.767, 대표자정보요인 0.733.

같은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 또한 제조기업과는 상이하다.

제조기업과 비제조기업의 금융에 대한 기대의 차이는 영업기반이 상이하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금융기관이 신용을 평가할 때 기업의 질적인 요인을 반영해 주었으면 하고 희망한다는 점에서 제조기업과 비제조기업은 차이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지역기업의 이러한 기대는 은행이 정보를 적극적으로 생산하고 그리고 감시를 강화하여 사적인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대출여부를 결정할 때 충족될 수 있을 것이다.

#### 4. 분석의 함의

표본기업은 투자기회가 충분하지 않아 금융기관 차입을 줄이려 계획하고 있다. 즉 제조기업의 54.1% 그리고 비제조기업의 41.3%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을 줄이겠다고 응답하였는데, 제조기업의 48.5%와 비제조기업이 47.7%가 차입을 줄이려는 이유에 대해 '새로운 투자기회가 없고 여유자금이 있어서' 또는 '새로운 투자기회가 생길 때 차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라고 응답하였다. 기업이 투자기회가 부

족하다고 느낀다는 것은 앞으로 지역경제가 활기를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함의하는데, 사태의 심각성은 업력이 높은 성숙기업뿐 아니라 업력이 업계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그렇지만 사업기반이 안정된 기업으로 판단되는 기업까지 투자기회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차입을 줄이겠다고 응답한 기업 중 20% 이상(제조기업 24.3%, 비제조기업 20.0%)은 그 이유로 '자금조달비용이 증대해서' 라고 응답하였다. 이들 기업의 업력은 업계 평균수준이다. 금융기관의 대출이자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기업간 경쟁이 심화되고 그리고 수익률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또한 지역경제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정보생산 및 감시기능은 은행의 핵심적인 기능이 라 할 수 있는데, 기업금융을 둘러싸고 경쟁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이 문제는 지방은행의 경우 특히 중요하다. 지역기업 중심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대기업과 밀접한 산업연관을 맺고 있는 비교적 규모가 크고 사업기반도 안정적인 제조기업은 지방은행과 비교적 소원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로 지방은행의 영업기반이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들 지역기업이 원하는 금융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해주지 못하는데 기인한다. 이에 따라 지방은행은

사업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기업을 주된 거래기업으로 하게 되는데, 이들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고 사업기반도 취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특징이 이들의 신용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은행은 신용위험을 낮추기 위해 이들에 대한 정보생산기능과 감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지방은행일수록 거래기업의 사적인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그리고 지역기업에 밀착되어야 한다는 것을 함의한다. 그렇다고 해서 지방은행이 거래관계를 소규모 기업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보다 많은 지역기업과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많은 경우 기업에 대한 정보는 지역경제와 광범위하게 밀착하는 가운데 파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산위험을 다변화하기 위해서도 다수의 지역기업과 거래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지방은행은 제조기업보다는 비제조기업과 밀접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의 영업기반은 주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방은행은 이들이 필요로 하는 금융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들에 대한 정보생산기능과 감시기능도 비교적 용이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 자체 지방은행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의 기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제조기업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과 산업연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전국은행과 거래관계를 맺으려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방은행은 비제조기업에 대해서도 지역기업에 밀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안될 것이다. 결국 지방은행은 지역경제의 광범위한 층위에 걸쳐 거래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문자 그대로 지역밀착경영은 지방은행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나아가 제고하기 위한 요체라 할 수 있다.

제조기업과 비제조기업은 금융에 대한 기대에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 자체는 양자가 영업기반이 상이하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금융기관이 기업신용을 평가할 때 단순히 재무제표에 의존하거나 신용보완을 요구하는 것에 대

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특히 표본기업은 신용평가에 성장성과 같은 기업의 질적인 요인을 반영해 주기를 희망한다. 이는 금융기관이 지역기업에 보다 밀착된 경영을 해주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역기업의 이러한 기대는 은행이 정보를 적극적으로 생산하고 그리고 감시를 강화하여 사적인 정보를 파악하고 그리고 이를 기초로 대출여부를 결정할 때 충족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는 은행이 기업에 대한 정보생산과 감시기능을 수행할 때 지역기업은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주된 영업기반이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지방은행은 다른 은행 특히 규모가 크고 영업구역이 전국에 걸쳐있는 전국은행과 경쟁해내기 위해 지역에 밀착된 경영을 해야 할 것이다.

## 5. 결론

앞에서 우리는 표본기업의 투자의욕이 크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해주기 위해 정부는 지역경제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그리고 지역기업이 업종을 전환하거나 기술혁신을 촉진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능은 금융기관 특히 지역금융기관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역금융기관은 먼저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여 기존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해 조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기업에 대한 정보를 생산하고 그리고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신생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나아가 이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역기업에 대한 정보생산기능과 감시기능은 지방은행이 지역경제에 공헌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 지적을 인용해 두고 싶다. 즉 “지역경제에의 공헌은 지역에 있는 중

소기업금융 원활화에 의해 수행되고, 중소기업금융의 원활화는 업무를 담당하는 중소·지역금융기관의 경영력 강화에 의해 실현된다.”(多胡秀人, 長濱裕士, 2005: 20)

최근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금융그룹화가 확산되면서 지방은행도 속속 지주회사로 전환되고 있다. 기존 논의가 말하듯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되면 지방은행의 정보생산 및 감시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예금과 대출업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비은행업무에 인적 및 물적 자원의 투입을 확대하면서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는데, 상대적으로 업무관리비용이 높은 관계적 금융은 더욱 그러하다. 다른 한편 전국은행이 지역에 밀착된 경영을 중시하면서 지방은행의 정보생산기능 및 감시기능에서의 이점도 위축될 수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지방은행은 금융지주회사로 전환된 이후에도 정보생산기능과 감시기능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제조기업과 비제조기업의 기업금융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우리는 지방은행이 지역에 밀착된 경영을 해야 한다는 점을 밝힐 수 있었다. 이 자체가 논문의 중요한 기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기업의 생산연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 주

- 1)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는 김현정(2002) 참조.
- 2) 강탈현상이란 기업의 사적 정보에 기초하여 금융을 공급하는 은행이 사적인 정보는 다른 은행과 공유되지 않아 그 기업이 다른 은행 신용에 접근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독점적인 이윤을 수취하는 현상을 말한다. 자세한 논의는 Rajan(1992), Sharp(1990)를 참조.
- 3) Berger & Udell(2002)에 의하면 은행규모가 확대되고 복잡해지면 대출심사역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대리인비용이 증가한다.

- 4) 여기서 말하는 전국은행은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시중은행과 특수은행을 가리킨다.
- 5) 예컨대 부산은행과 대구은행은 2011년 금융지주회사로 전환되었다.
- 6) 정운찬·김홍범(2009), pp.313-314.
- 7) 한편 Avery & Samolyk(2004)은 지역은행간 합병은 중소기업금융에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다고 주장한다.
- 8) 이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하려는 애초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 9) 부산지역기업의 주거래은행으로서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하에서 말하는 전국은행에는 두 은행을 제외한다.
- 10) 상세한 설명은 家森信善(2006) 참조.
- 11) 자세한 설명은 허명회·양경숙(2001), p.237 참조. 대응분석에는 비대칭적 대응분석과 대칭적 대응분석이 있는데, 그림 1 및 그림 2와 같이 행과 열이 모두 응답자 반응일 경우에는 대칭적 대응분석을 사용하게 된다. 그림 1에서 현재 국민은행을 선호하는 것과 미래 국민은행을 선호하는 것은 상호 연관(즉 대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 기업은행을 선호하는 것과 미래 기업은행을 선호하는 것은 대응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굳이 횡축과 종축에 대한 명명(naming)은 필요하지 않다. 비대칭적 대응분석의 경우에는 횡축과 종축의 명명을 해야 하지만 이 논문의 대응분석은 대칭적 대응분석이기 때문에 횡축과 종축을 명명하지 않았다.
- 12) 요인분석은 사회과학에서 구인(construct)에 대한 운영정의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변수 중심의 차원축소기법이다. 자세한 설명은 허명회·양경숙(2001), p.237 참조. 여기서는 22개 변수를 6개 요인으로 축소하고, 6개 요인 각각에 대해 변수 함으로 간명하게 표현하였다. 측정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를 사용했다.
- 13) 물론 「성장성요인1,2」에는 성장성 요인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이 들어있다. 이는 설명이 어느 정도 유보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는 성장성을 보여주는 질문항목이 「성장성요인1,2」의 중심항목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 14) 이와 관련된 논의로는 신보성·빈기범·박상용(2005), pp.11-12 참조.

### 참고문헌

- 강종구, 2005, “은행의 금융증개기능 약화원인과 정책과제,” *경제분석* 11(3), pp.1-32.
- 김동환, 1999, 은행과 기업의 관계와 금융시스템의 향방, 한국금융연구원, pp.61-67.
- 김현정, 2003, “외환위기 이후 은행-기업 관계의 변화”, *경제연구*, 130, pp.1-43.
- 배병호, 2006, “국내은행의 비은행업무 확대가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 *조사통계월보*, pp.23-50.
- 서근우, 2003, 중소기업 금융의 현황과 과제-관계형 금융을 중심으로, 한국금융연구원, pp.33-50.
- 신보성 · 빈기범 · 박상용, 2005,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은행의 균형발전 필요성, 한국증권연구원, pp.11-12.
- 심상규, 2006, “중소기업의 신용관리방안-자금조달과 상품판매를 중심으로,” *기은조사*, pp.61-114.
- 정운찬 · 김홍범, 2009, 화폐와 금융시장, 울곡출판사, pp.313-314.
- 허명회 · 양경숙, 2001, SPSS 다변량자료분석, SPSS 아카데미, p.237.
- 家森信善, 2006, 企業が望む金融サービスと中小企業金融の課題-關西地域の企業金融に關する企業意識調査を中心に, RIETI Discussion Paper Series 06-J-003.
- 多胡秀人 · 長濱裕士, 2005, 地域金融機關はなぜ強くなれないか? 中央經濟社, p.20.
- Avery, R. B. and Samolyk, K. A., 2004, “Bank consolidation and small business lending: the role of community banks,” *Journal of Financial Services Research* 25(2/3), pp.291-325.
- Berger, A. N. and Udell, G. F., 2002, “Small business credit availability and relationship lending: The importance of bank organizational structure”, *Economic Journal* 112(February), pp.32-53.
- Bonaccorsi di Parti, E, and Dell’Ariccia, G., 2004, “Bank Competition and Firm Creation,”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36(2), 225-251.
- Carter, D. A., McNulty, J. E. and Verbrugge, J. A., 2004, Do small banks have an advantage in lending? An examination of risk-adjusted yields on business loans at large and small banks,” *Journal of Financial Services Research* 25(2/3), pp.233-252.
- Cetorelli, N., 2003, “Real Effects of Bank Competition,”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36(3), pp.543-558.
- Cetorelli, N. and Gambera, M., 2001, “Banking Market Structure, Financial Dependence and Growth: International Evidence from Industry Data,” *The Journal of Finance* LVI(2), pp.617-648.
- DeYoung, R. and Roland, K. P., 2001, “Product Mix and Earnings Volatility at Commercial Banks: Evidence from a Degree of Total Leverage Model,” *Journal of Financial Intermediation* 10, pp.54-84.
- Petersen, M. A. and Rajan, R. G., 1995, “The Effect of Credit Market Competition on Lending Relationship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May, pp.407-443.
- Rajan, R. G., 1992, “Insiders and outsiders: the choice between informed and arm’s-length debt,” *Journal of Finance* 47, pp.1367-1400.
- Sharp, S., 1990, “Asymmetric information, bank lending and implicit contracts: a stylized model of customer relationship,” *Journal of Finance* 45, pp.1069-1087.
- 교신: 최진배,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309, 경성대학교 경제금융물류학부, 전화: 051-663-4412, 팩스: 051-663-4409, 이메일: jbchoi@ks.ac.kr
- Correspondence: Jin Bae Choi, Department of Economics, Kyungsoong University, 309 Suyoung Ro, Nam Gu, Busan, 608-736, Korea, Tel: +82-51-663-4412, Fax: +82-51-663-4409, e-mail: jbchoi@ks.ac.kr

최초투고일 2011년 10월 18일  
최종접수일 2011년 11월 1일

## **The Consciousness and Implication of Manufacturing and Non-Manufacturing Firms on Corporate Finance in Pusan Region**

Jin Bae Choi\*

**Abstract** : Based on the survey, this paper examines entrepreneurs' attitude toward corporate lending in Pusan region. The results show that the relationships of manufacturing firms with banks are different from those of non-manufacturing firms. These are mainly due to the differences in the operational grounds between them. The non-manufacturing firms have their operational ground in Pusan, thus they have local banks as their mainbanks and depend heavily on mainbanks' credits. However the business network of the local banks is not broad enough to satisfy the manufacturing firms financial service needs. Therefore, the manufacturing firms maintain close relationship with not only regional local banks but also other banks.

The results of the study demand the local banks to produce information of the regional firms and to monitor them more widely and tightly. One of the important contributions of this paper is that it has succeeded in making clear the importance of relationship banking of the local banks.

**Keywords** : Pusan region, loans to corporation, local bank, operational ground, financial constraints

---

\*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Kyungsung University